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광주-1982-36	광주시 광산구 장록동 364-2
지정년도	1982	35° 08' 10.05" N
관리기관	광주	126° 46' 44.56" E
수령	310년	
수고	17m	
홍고둘레	6.6m(줄기 전체)	

황룡강을 끼고 영산강까지 장록습지가 지나가는 마을의 보호수(광주-1982-36) 느티나무는 마을 안쪽 깊은 곳의 좁은 마을 길 옆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줄기 전체 외부)는 66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가량이다. 원줄기는 밑동에서 3~4갈래로 갈라지고, 높이 1m 정도에서 다시 4~5갈래로 갈라져 비스듬히 위로 향하고 있다. 가지 줄기 1개는 이미 고사한 상태로 남아 있다. 갈라진 줄기가 사방으로 퍼진 후 다시 가지 줄기를 내어 전체적인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주변에는 낮고 좁은 석축이 쌓여 있으며, 그 위는 시멘트 처리로 다져 놓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마을의 유래와 관련이 있다. 1993년 광주시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마을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이었다. 김해 김씨 후손, 장수 황씨 후손, 인동 장씨 후손이 시골 마을로 귀향을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어 어느 당산 근처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그들은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의 꿈에서 들은 말은 이곳이 금계포란의 형국이므로 사람이 살면 좋지만 지대가 낮아 홍수가 우려되니 주변에 나무를 심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 사람이 3곳에 나무를 심고 정자 3개를 지어 살기 시작한 것이 마을의 유래이다. 느티나무는 마을이 형성된 이후에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심은 나무 중에 살아남은 것이다. 어느 해에 홍수로 가옥이 침수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심은 느티나무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면하였다. 그 후 마을에서는 커다란 느티나무에 제단을 쌓고 정월 대보름날에 당산제를 지냈다. 단을 만들어 놓은 보호수 느티나무는 할아버지 당산이고, 마을 서쪽의 휴서정 옆에 있는 나무는 할머니 당산이라 부르고 있다. 한편, 장록동은 원(院)이 있어 장록원으로 불렸다. 여행자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던 공공여관을 원院이라 불렀고, 보통 말을 보관하였던 곳을 역驛이라 하였던 것으로 보면 옛날 장록동(장록원)에는 공공 여관과 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